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우호조약을 맺기 위해서다. 이때 아브라함을 향해 건넨 아비멜렉의 말은 외교적인 수사(diplomatic rhetoric)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 창세기 21:22

아비멜렉이 우호조약을 맺으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았을 때 사람을 보내 데려간 것은 혼인을 수단으로 조약을 맺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이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가문이 멸절할 위기를 겪었지만 아브라함을 멀리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 창세기 21:23

아비멜렉의 요구는 단순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원했다. 이미 한 차례,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가 사라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것이다. 유목민에게는 우물이 생명이고 재산이니 조약을 맺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였다.

아브라함의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은 누가 그랬는지 몰랐다고, 오늘 알았다며 해명을 한다. 조금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상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또 하나님께서 ‘죽을 줄 알지니라’하실 수도 있으니까(20:7).

약속을 맺는데 필요한 짐승은 아브라함이 부담했다. 이로써 그랄 왕 아비멜렉과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나그네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과 손자 세대 까지 유효한 불가침 조약이 맺어졌다. 조약과는 별도로 암양 새끼 일곱 마리도 따로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기회에 아예 우물을 살 생각이다. 그 우물의 이름은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로 지어졌고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 창세기 21:31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무서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사이 좋게 지내자며 요구한 것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라니….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실함’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라니… 말 안되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다.